

'넷이벤츠 APAC 2011 Press Summit' 기존모델 과감히 바꿔라! 2011/04/07



'넷이벤츠 APAC 2011 Press Summit'의 본 행사 이틀째인 7일, Amit Sinha Roy 타타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의 기조강연이 열렸다.

“더 이상 꾸물거렸다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Amit Sinha Roy부사장의 말이다. 과거 어느 시장도 현재처럼 발 빠르게 대응해야 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생존전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기업들은 컴퓨팅 인스트럭처를 새로 구축해야 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존모델을 갖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IT환경의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가시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할 것, 둘째. 많은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셋째. 내가 소비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는 “기존 모델들이 사후 반응적이고 기술적이었다면 현재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이렇게 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IT 시장 내에서 클라우드가 호의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민첩성과 유연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면서 기업제품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유도 있다.

그는 “클라우드가 기업에 도입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은 주로 SaaS에서 시작을 하고 구입하기 전 테스트를 하기를 원한다”며 “이에 반해 PaaS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를 플랫폼에 내어놓고 싶어 하는 기업들, IaaS는 기업의 서버, 데이터, 네트워킹 서비스를 PC상에서 모두 아우르고자 하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의 강점을 인터넷상 어디에서든 접근 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전에는 몇 달에 걸렸던 것을 지금은 몇 분 만에 에 걸쳐 해결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비해 약 70퍼센트의 비용절감이 이뤄지면서 유연성과 확장성은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웹서비스와 웹서버를 이용하는 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클라우드의 매력을 ‘비용절감’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정의 내렸다. 미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CIO**